

# 백서

---

## SD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시작하는 방법

IBM 기능 중심

공동 저자: Mark Peters(선임 분석가) & Monya Keane(투자 분석가)

2015년 2월

---

본 ESG 백서는 IBM에서 작성을 의뢰하여  
ESG 허가 하에 배포됩니다.

## 목차

<b>도입말과 배경</b> .....	<b>3</b>
기존 스토리지로는 스토리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b>SDS는 넓은 개념</b> .....	<b>4</b>
SDS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	5
최적의 SDS 선택.....	5
사용 가능한 SDS 아키텍처가 이미 있습니까? 거의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6
<b>다양한 이점의 SDS</b> .....	<b>6</b>
<b>최적화한 SDS를 채택하고 시작</b> .....	<b>7</b>
<b>가장 중요한 진실</b> .....	<b>7</b>

모든 상표 이름은 해당 회사의 재산입니다. 이 책의 정보는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ESG)이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하는 출처로부터 제공된 것이지만 ESG는 해당 정보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ESG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The Enterprise Strategy Group, Inc.에게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드카피로든, 전자적으로든 또는 다른 방법이든 복제하거나 그것을 제공 받을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 재배포하는 행위는 미국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소송(해당하는 경우)의 대상이 됩니다. 의문사항은 ESG 고객 센터(508.482.0188)로 문의해 주십시오.

## 도입말과 배경

업계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스토리지/데이터 난제를 해결하는 데 SDS(Software-Defined Storage,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sup>1</sup>

아이러니하게도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무엇인지를 두고 합의한 정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IT 전문가가 조직에 주는 SDS 이점을 파헤치자 한결같이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도와 구축법, 혜택 정도는 다르게 예상합니다. 하지만 SDS가 가치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입니다.

### 기존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조직은 왜 SDS가 '필요'할까요? IT 업계는 왜 SDS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스토리지의 용량, 성능, 기능, 유연성이 크게 성장하면서 IT 조직이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것은 널리 퍼진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스토리지가 기존 접근법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이동성, 소셜 플랫폼 통합을 필요로 하는 새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이니셔티브와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 심지어 'IoT'(Internet of Things)로 인해 엄청나게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스토리지 난제와 기대치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증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예산(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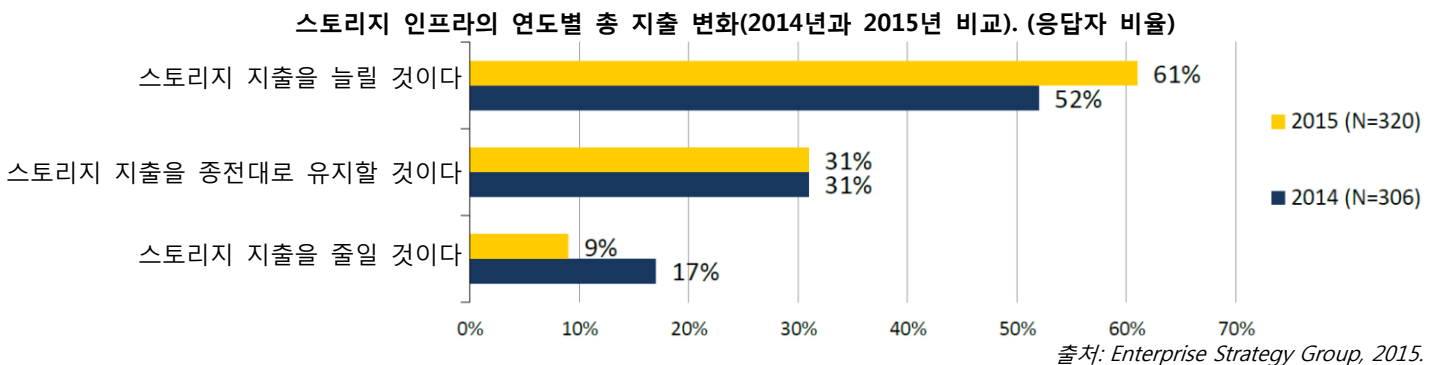
그러한 변화가 계속되면서 조직은 기존 스토리지와 인프라의 제약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유연성을 원합니다. '기존 스토리지'는 현재 데이터 난제인 확장성, 통합, 유연성을 극복하기에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수요를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는 방식은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식은 연속적 확장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게 비용을 늘리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 다른 유형의 스토리지 시스템과 사일로(silo), 클라우드에서 수동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부담이 아주 큼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지 풀이나 지리적 위치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면 복사-관리 비용과 복잡성 문제가 발생하고 클라우드로 범위를 넓히면 복잡성이 배가 됩니다.

따라서 조직은 기존에 스토리지에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대상 조직에서 스토리지 할당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sup>2</sup>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예산 증가의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타당한 요인도 있습니다.

- 스토리지의 용량당 원가 하락—이 하락은 현재 조직 대부분에서 반기고 있음
- 더 효율적인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실행함으로써 개선 - 하지만 그 효율성을 실현했거나 실현하려고 노력한 기업은 소수임.

그림 1. 스토리지 인프라 지출은 IT 조직의 계속된 우려사항임



<sup>1</sup> 이 주장은 차세대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ESG의 연구(2015년 2월 발표 예정)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활발한 프로모션과 분석가들의 토의에 기인함.

<sup>2</sup> 출처: ESG Research Report, 2015 IT Spending Intentions Survey(2015년 2월 발표 예정).

그 상황은 긴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리지 모델은 운영 면에서나 재정 면에서 이미 결함에 가깝습니다.

-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는 응답성과 유연성, 탄력성을 필요로 합니다. 구형 스토리지에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하면 **작동**이 불가능해집니다.
- **재정적 측면에서** ESG의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술 비용의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많이 언급한 비즈니스 이니셔티브가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sup>3</sup>. 이는 설문 응답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특히 향후 12개월간 IT 투자와 관련해 조직의 비즈니스 관리 팀을 설득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울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 대답 Top 4 중 세 가지가 ROI(return on investment),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OpEx 절감이었습니다.<sup>4</sup>

현재 스토리지 에코시스템은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 조치가 SDS가 될 수 있습니다. SDS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양한 SDS에서 클라우드를 수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SDS 데이터 관리 패러다임의 이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SDS는 복잡한 관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클라우드의 긍정적 면(예: 저렴한 비용, 높은 탄력성)을 통합해 활용하는 길을 제공해줍니다.

## SDS는 넓은 개념

SDS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다고 해서 잠재적 가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IT 전문가들이 SDS라는 용어를 간과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과하는 근본 이유는 *SDS 정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루 적용되고 영원히 확고할 만한 SDS 정의를 제시하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SDS는 상위 개념입니다. 너무 많은 특수성을 나타내려다 보면 일반적 요소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SDS는 그램(g)이나 리터(l), 미터(m)으로 주문할 수 있는, 수치화되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SDS를 내세우는 모든 항목에서 유일한 공통한 점이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로 옮겨왔다*는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sup>5</sup> SDS에 대한 사전적 표준 정의를 만든다고 해서 IT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가 운영을, 수익을, 비즈니스 결과를 향상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SDS를 정의한 공급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SDS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루션에 맞춰 SDS를 정의합니다. 결국 망치만 있는 사람이 왜 망치가 필요한지만 이야기하고 정작 못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격입니다.

완벽한 SDS 정의를 찾으려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소용없는 일입니다. 조직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사용자와 작업 부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스토리지 요건.** 이때 '스토리지 요건'은 성능, QoS(Quality of Service), 기능성, 예산 같은 요인과 관련 있습니다(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 포함).
- **위 스토리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뛰어넘으려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토리지 솔루션이 그 방법입니다. 그 솔루션은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기능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그 솔루션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재조명받고 있으며 SDS라고 불림).

다양한 접근법과 기능, 범위와 확장성, 경제성이 일반적인 SDS라는 큰 개념에 포함될 것입니다. 올바른 틀과 사용자의 정확한 니즈를 맞추는 것이 흥미로운 개념을 찾는 대화에서 매력적인 IT를 창출하는 대화로 진화하는 지점입니다.

<sup>3</sup> 이전 항목과 같음.

<sup>4</sup> 유일하게 순위가 더 높은 이니셔티브는 보안 및 위험 관리였습니다. 당연히 '현재 큰 화제거리'는 IT 보안입니다.

<sup>5</sup> 수년 전에 클라우드는 맨틀(mantle)을 채택할 때도 비슷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은 사람들이 접근법을 세분화(SaaS, IaaS 등)할 수 있게 되고 클라우드 기능과 선택 범위에 익숙해지면서 줄었습니다. ESG는 SDS도 그와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SDS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

SDS에 이르는 데는 다양한 경로와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SDS라는 상위 개념에 속하는 주요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 점이 분명합니다. 스토리지가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였다는 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예전에는 기업이 서버상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컨트롤러의 마이크로코드만 논의 초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공급업체가 어레이 기능의 기반을 ASIC에서 x86 프로세서로 옮김으로써 'SDS'로의 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SDS가 생기고 거대한 처리 능력과 네트워크 대역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스토리지를 정말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기능은 그 위치에 상관없이 불과 몇 년 전보다도 *훨등* 뛰어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작업부하와 최종 사용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 요건에 따라 (1) 최적의 SDS 유형과 (2) SDS 소프트웨어 실행 위치, (3) 소프트웨어 기능 범위가 결정됩니다. SDS의 하위 범주(별개로 보거나 통합해서 볼 수 있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스토리지 가상화
- 관리 및 모니터링
- 조직화
- 소프트웨어로 구동하는 전체 스토리지 기능

이들 각 항목은 특정 공급업체 제품과 관련 있거나 오픈소스 스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종 하드웨어나 상용 하드웨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것이 서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공급되었거나 실제 운영 체제나 하이퍼바이저와 함께 제공되었다면 그 중 일부나 전체가 스토리지 시스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현장이나 클라우드에서 가능합니다. 서로 이질적이거나 전혀 알 수 없었던 SDS의 범위가 공급업체가 간단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일반 IT 관리자가 더 많은 유연성과 제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옵션의 범위는 숙련된 IT 전문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선택을 통해 해당 스토리지 환경에 잠재한 운영적/재정적 가치를 열어줄 수 있는 SDS 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적의 SDS 선택

그렇다면 선택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항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운영상 요건:** 말은 행동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화려한 마케팅상술은 무시하십시오. 결과뿐 아니라 현재/향후 몇 년간의 우선순위와 예산도 고려하십시오. '최첨단 IT 항목'을 얻은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실용적인 요건을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필요한 SDS 솔루션 속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도 플로어 박스(floor box)가 많아서 문제인데 새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려면 훨씬 더 많은 박스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라면,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예: [IBM SVC](#))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가 크게 늘어 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계획(사물인터넷 등에서 데이터 수집 예정)이라면 IBM Spectrum Scale 같은 솔루션이 그 정도 데이터의 범위와 확장성, 접근성을 처리하는 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 특성:** 특정 요건과 선택 가능한 구현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SDS라는 도구'를 여러 개 갖춘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존의 IT 운영 환경에 적합한 SDS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지는 초심자에게는 쉬워 보이는 IT 영역이지만 실제로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신 프로세싱 플랫폼을 가상화하고 통합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오히려 압박받는 환경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늘수록 그에 따라 리스크도 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DS 세상에서는 사실상 하드웨어(상용 여부에 관계없이)가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대다수가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옵션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클라우드의 저렴한 비용과

리소스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예: 한시적으로 스토리지를 사용하다가 다 사용하면 사용 중단). 이 경우에 좋은 SDS 솔루션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관리 대상 스토리지 유형이 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환경을 더 관리하게 어렵게 만들어 운영 비용을 높이는 대신, 저비용과 편리함이라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공급업체 중에서 현장에서 검증된 SDS 오퍼링으로 신뢰를 받는 것은 물론, 광범위한 SDS 기능과 필요에 따라 하드웨어도 제공하는 업체라면 여러분의 니즈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BM이 이 유형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공급업체입니다. IBM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SDS 오퍼링은 물론, 폭넓은 하드웨어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BM SDS가 릴리스 1.0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업에서 검증된 상호 운용 가능한 갖가지 툴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기존 제품에서 이름을 바꾸고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긴 했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SDS의 기본 '기능'은 수년간 IBM에서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의 좋은 예가 GPFS 소프트웨어와 큰 성공을 거둔 IBM SVC 가상화 엔진입니다. 전자는 IBM Spectrum Scale 오퍼링을 강화해주는 소프트웨어고, 후자는 여러 공급업체의 서로 다른 스토리지 장치에서 스토리지 기능과 관리를 오랫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엔진입니다.<sup>6</sup>

**사용 가능한 SDS 아키텍처가 이미 있습니까? 거의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사용 가능한 퍼즐 조각을 이미 갖춘 곳이 IBM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전반적인 SDS 아키텍처 요소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연히 IT 부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운용에는 바람직하더라도 재정에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SDS 오퍼링이라면 장점에 따라 물리적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전혀 알 수 없거나 이질적인 SDS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존 인프라에 맞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IBM 같은 공급업체 입장에서 보면 SDS는 대대적인 인프라 변경이 아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유익한 고급 기술로 여겨집니다.

## 다양한 이점의 SDS

SDS 이점에는 원하는 스토리지 기능을 특정 작업 부하에 효율적으로 동적 매핑(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할 수 있는 잠재성과 탄력성이 있는데 그런 이점은 IT 관리자의 스토리지 최우선 사항입니다. SDS 잠재적 이점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SDS를 구매하려고 할 때 살피고 파악하고 결정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 중앙 집중식으로 간편하게 관리: 이렇게 하려면 인터페이스가 일관된 한 시스템에서 더 많은 혹은 모든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잘 구현해서 핵심적 특징(특히 유연성과 변경 용이성)을 살리면 SDS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이상적인 기본 요소가 됩니다.
- 확장성: 기본적으로 모든 솔루션이 확장 가능하지만 IBM Spectrum Scale과 같은 고급 SDS 오퍼링은 그 능력에 'IT 활력'을 더해줍니다. 즉, 확장 가능하게 해서 규모를 늘릴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산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통합 가능하게 해줍니다.
- 이질성: SDS 툴 대부분이 이질적 환경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위치나 데이터 유형,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유형과 같은 제약이 사라집니다. 한 IT 의사 결정권자가 ESG에 말했듯이 SDS는 '데이터를 담은 하나의 마법 상자'와 같습니다.<sup>7</sup>
- 경제성: SDS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절감해줍니다. 전통적 스토리지를 사면 그때마다 하드웨어 및 관련 전매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논리 소프트웨어에 단 한 번 투자해서 스토리지 하드웨어 전체를 관리하면 조직의 OpEx와 CapEx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SDS로 실현하는 규모의 경제

<sup>6</sup> 참고: IBM의 특정 기능 일부를 여기에서 언급했지만 본 백서는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SDS가 효율적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용자나, SDS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두는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IBM 기능의 세부 내용은 IBM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향후 ESG 백서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sup>7</sup> 출처: ESG Research Report, *Next-generation Storage Architectures*(2015년 2월 발표 예정).

덕분에 스토리지/시스템 관리자는 리소스 활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이전보다 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변함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최적화한 SDS를 채택하고 시작

몇 년 전 클라우드가 등장했을 때처럼 문제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접근법과 기능이 혼재된 여러 공급업체가 일부 타당성만을 갖춘 채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후광을 얻고자 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일부 잠재적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SDS를 고려 중인 IT 사용자의 시작점은 단 *한 개*로, 니즈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영/재정 니즈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단지 SDS가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구축해야 한다는 '니즈'여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SDS는 특정 사물이 아니라, 여러 공급업체 구현을 통해 접근하는 개념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고를 때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SDS를 살필 때도 그와 거의 같습니다. '니즈'가 제일 중요합니다. 훌륭한 SDS 오퍼링으로 시작하면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대체하는 일이 없습니다. IBM은 '상자에 담긴 마법 같은 SDS'를 판매하려고 하는 게 조직이 기존 환경에서 시작해 증축하도록 지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보편적인 조직이라면 '공식적인' SDS 구현에 포함할 수 있는 SDS 요소(또는 적어도 SDS 샌드박스에서 잘 기능할 인프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 맞는 공급업체와 함께, 공식적으로 구현된 대상에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 다양한 운용/예산 니즈 충족
- 설치한 기존 항목 수용
- 클라우드를 포함해 원하는 여러 위치에서 여러 유형의 물리적 스토리지 관리
- 향후 기술 발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 신뢰를 주고 지원 서비스와 같은 입증된 전문 기술의 보유

## 가장 중요한 진실

IT 관리자는 공급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정의'라는 용어를 거의 모든 것에 적용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미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사결정권자들은 개념적인 SDS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는 SDS에 관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방법과 정도의 차이입니다. 채택한 SDS를 확장하려는 조직이 알아야 할 점은 훌륭한 솔루션(IBM 솔루션 등)이라면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DS는 IT 운용과 경제성에 미치는 측면에서 혁신적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원활히 시작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조직은 선택 폭이 과도하게 넓은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맞는 솔루션을 찾으려 하고 구현, 향후 개발, 기존 자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유연한 솔루션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공급업체 자체를 자세히 살피십시오.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스토리지를 모두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다양하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

IBM은 스토리지 기술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유연성과 클라우드 준비성, 분석, 콘텐츠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요건에 부합하는 SDS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IT 전문가에게는 SDS가 '새로운' 개념일지 모르지만 IBM에게는 뿌리 깊은 기능입니다.

**SDS의 잠재성:** 차세대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새 ESG 조사에 따르면, 'SDS'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람은 응답자 중 4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SDS의 잠재적 가치와 운용/재정적 가치를 논하자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SDS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유연성과 비용, 확장성, 기능성, 간편한 관리 면에서 SDS에 있는 잠재성을 인정했습니다.



Enterprise Strategy Group | **Getting to the bigger truth.**

20 Asylum Street | Milford, MA 01757 | Tel: 508.482.0188 Fax: 508.482.0218 | [www.esg-global.com](http://www.esg-global.com)